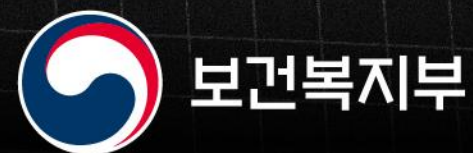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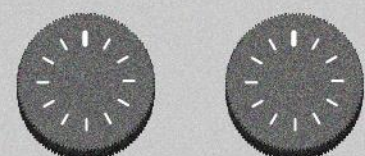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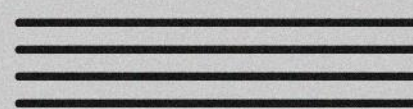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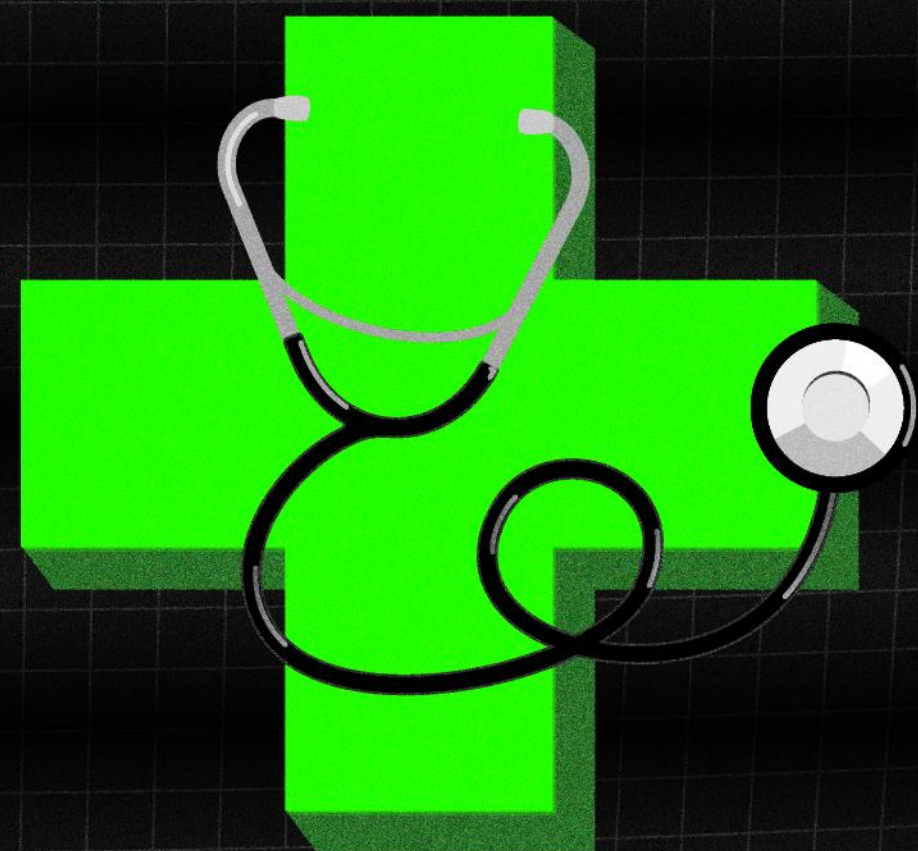


의대증원+
팩트체크✓



왜? 지금
2,000명이나
늘리나요?



Q. 왜? 지금 2,000명이나 늘리나요?

의대증원+
팩트체크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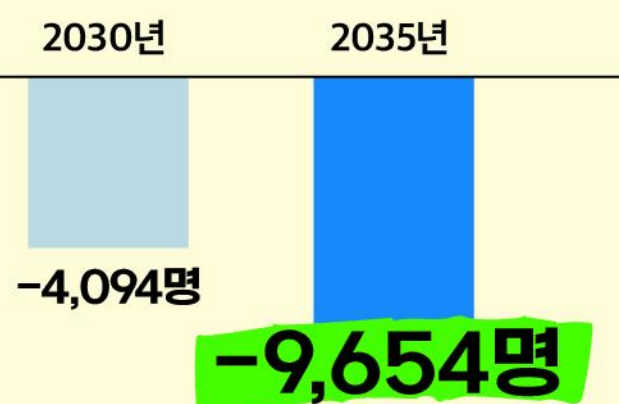
▶ 2025년 의대증원을 시작하면 35년에 전문의가 배출됩니다.

의사 1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립니다.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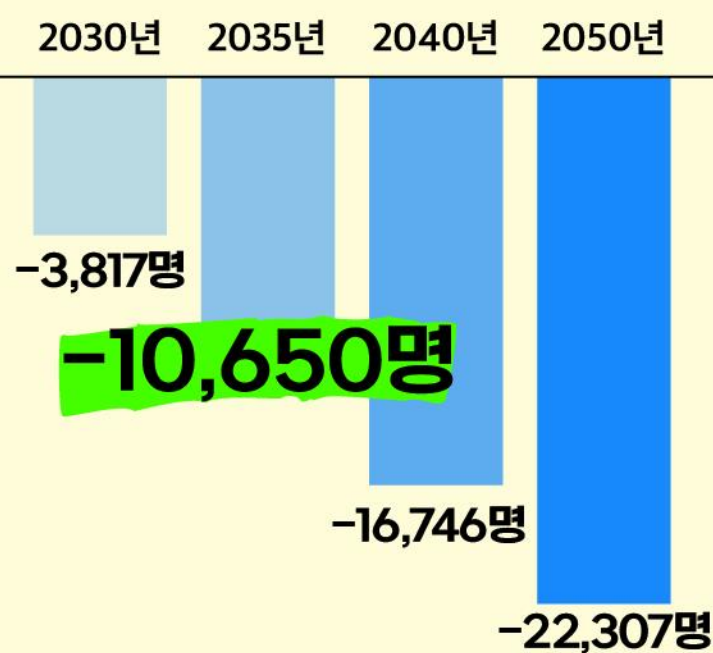


▶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2035년이면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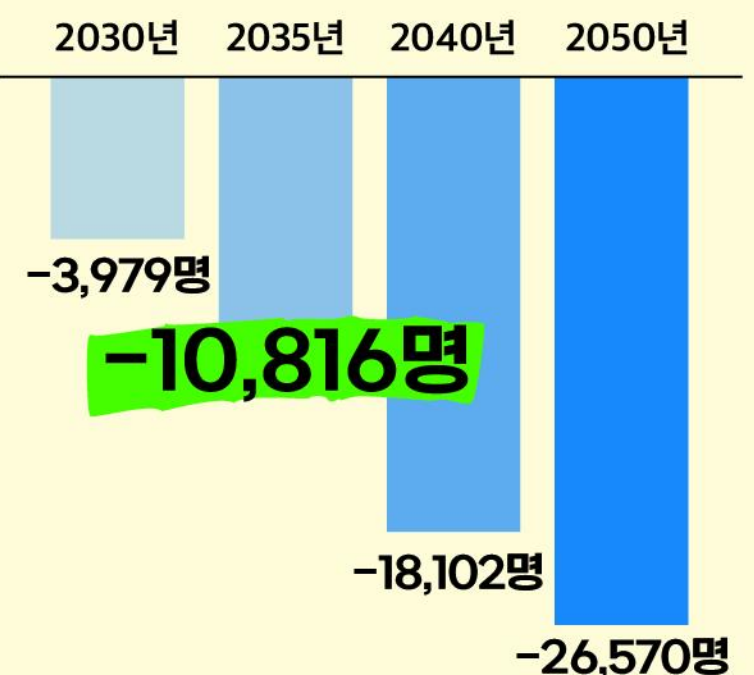
보사연 신영석
(‘20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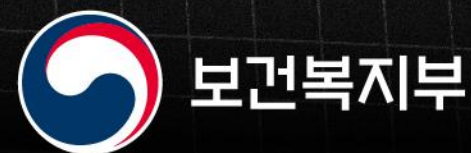
KDI 권정현
(‘23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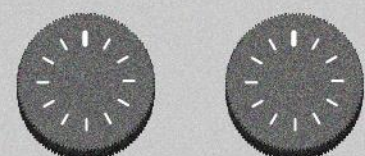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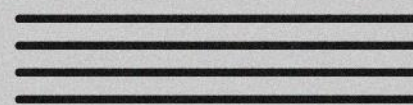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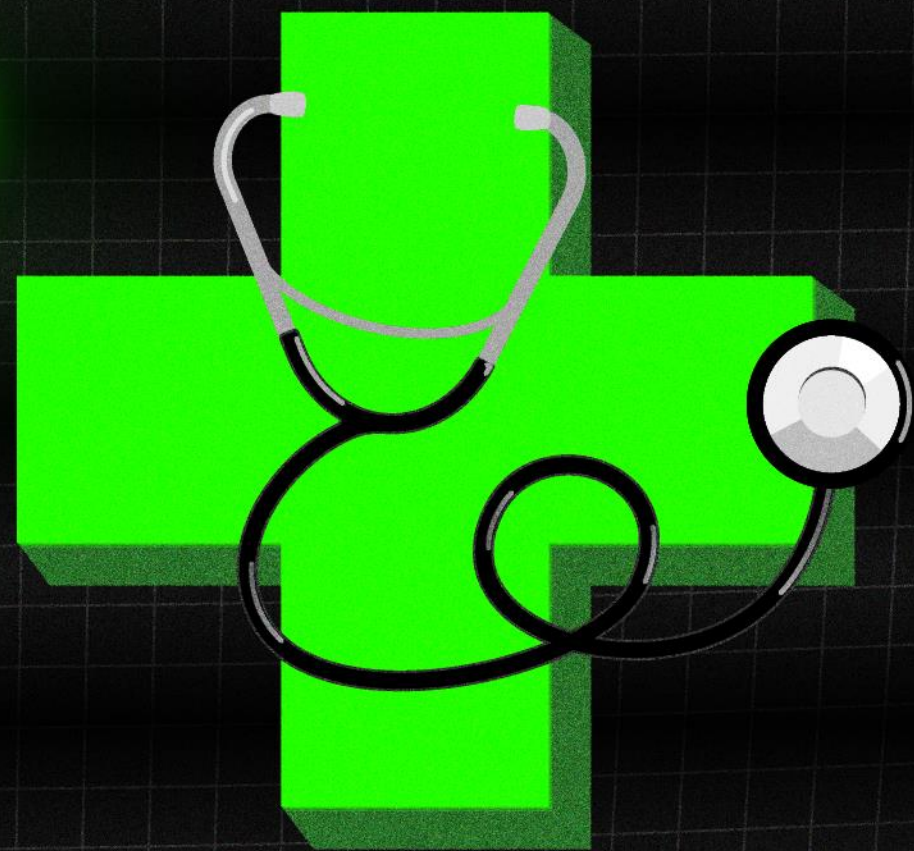
서울대 홍운철
(‘20년)



의대증원+
팩트체크✓



인구는 감소하는데 의사는 왜 늘려요?



Q. 인구는 감소하는데 의사는 왜 늘려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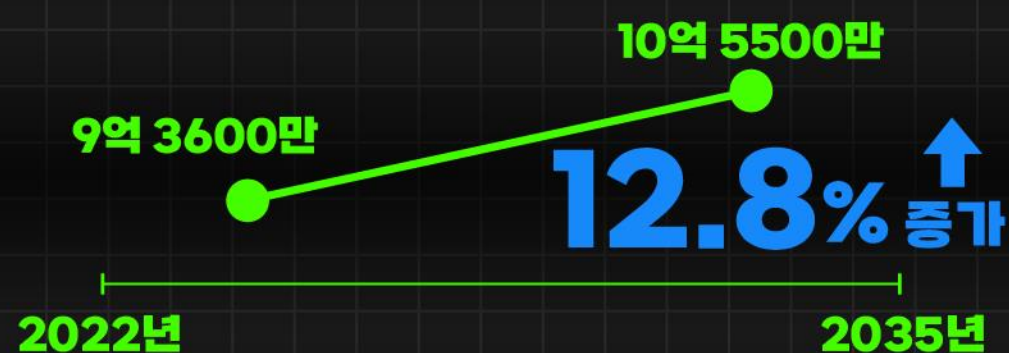
의대증원+
팩트체크✓

의료 수요는 늘고, 의료 공급은 줄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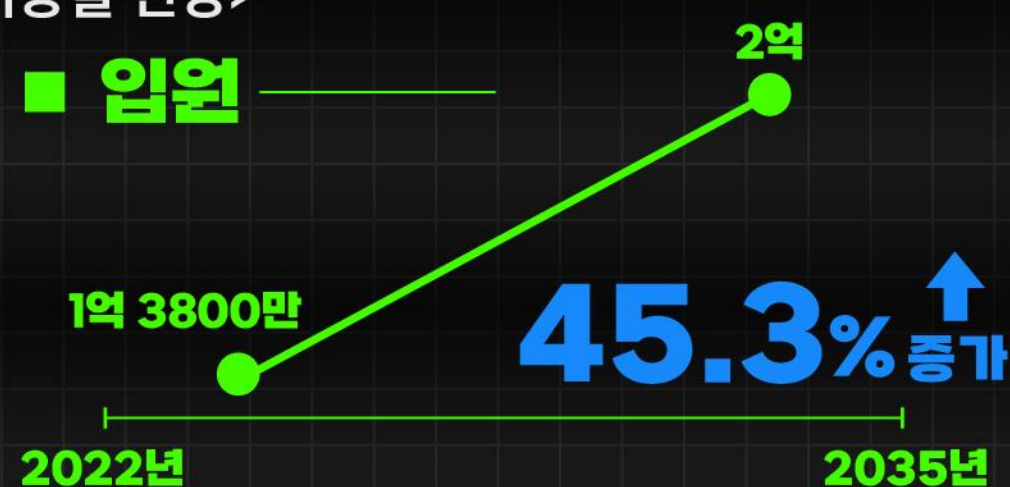
①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이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

<고령화에 따른 병원 이용일 전망>

■ 외래



■ 입원



② 의사도 고령화됩니다.

2035년 의사 10명 중
2명이 70대 이상
(70대 이상 의사 수)



③ 전공의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듭니다.

전공의 7년간 근로시간
감소효과 2,485명



2015년
주 92.4 시간

↓ 16% 감소

2022년
주 77.7 시간



보건복지부



의사 확충은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원과

관련이 없습니다

**오히려,
정부는 수도권 분원 설립이
지역의 병상과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
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**

“다수의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방의료인력이
유출되어 지역 필수의료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.”

〈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보건복지부 브리핑(’23.8.8) 발췌〉

**이에 지방의료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
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이 대책은 종합병원(300병상 이상) 및
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
개설 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의무화
하고 있습니다.**

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에는
의료기관 개설 시작단계에서 시도의료기관 개설 위원회의
사전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

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
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
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〈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보건복지부 브리핑('23.8.8) 발췌〉

**정부는
지역별 적정한 수준의 병상을
공급하기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할
예정입니다.**

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는
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